

아동문학이 새롭게 나아가야 할 길

‘명랑소설’ 등 대중물에서 배울 점 적지 않다

조대현

아동문학가

‘대중물’에 압도당한 ‘순수물’

80년대 상업주의 출판풍토는 아동물을 ‘순수물’ 대 ‘대중물’로 양분해놓았다. 예컨대 아동문학가들의 문학적 탐구의 소산인 창작동화·소설이 앞의 것이요, 명랑소설 성교육동화 괴기소설 등 출판사의 의도된 기획에 따라 개발된 것이 뒤의 것이다.

그동안 명랑소설 등 대중적 아동문학(도서)에 대해서는 그 공과를 놓고 많은 시비와 논란이 있어 왔지만 한가지 분명한 것은 독자개발이라는 측면에서 기존의 순수 창작동화·소설은 참패를 면치 못했다는 사실이다. 발행 종수나 부수에 있어서도 순수물은 대중물에 비해 20:80의 비율로 훨씬 뒤떨어지고 있다.

아동문학이 어린이에게 때묻지 않은 정서와 꿈을 심어주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라면 그 내용이 순수하고 교육적이어야 한다는 식자들의 주장은 전적으로 옳다. 그러나 정작 독자인 어린이가 순수물을 외면하고 대중물 쪽으로만 눈을 돌리는 것이 현실이라고 한다면 소위 순수물이라고 하는 창작동화·소설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반대로, 그토록 여론의 지탄을 받으면서도 명랑·성교육·괴기 등 대중물이 꾸준한 독서시장을 확보해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 거기에 순수물이 따르지 못하는 어떤 마력이 있는 것이 아닐까?

순수를 지향하는 아동문학가들이 많은 시간과 정력을 투입하여 써놓은 글이 어린이들에게 전혀 읽혀지지 않고, 또 뜻있는 부모들이 자녀에게 질 높은 도서를 읽히고 싶어도 마땅한 책을 고르기가 어려운 현실을 앞에 놓고 그 원인을 규명해 보는 것은 빈사상태에 빠진 우리의 창작동화·소설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열쇠가 될 것이다. 나아가서 그것은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지는 전체 아동도서의 질을 높이는 한 계기가 될 수도 있으리라는 확신에서 이 글을 초해 본다.

대중물이 순수물에 비해 아동으로부터 환영받는 까닭은 물론 흥미위주적인 창작 방식에서부터 비롯된다. 발상 자체가 아동의 독서욕구 유발을 겨냥하고 나온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순수문학이 미처 착안해내지 못한 내용상 기법상의 어떤 유인요소들이 내재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찾아 순수물과 접촉을 시킨다면 이제까지의 창작동화·소설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순수문학이 개발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이 글에서 논하고자 하는 주안점

이다.

대중물이 아동의 독서욕구를 유발하는 가장 큰 요인은 그것이 독자인 아동의 관점에서 씌어졌다는 사실이다. 이제까지의 순수 동화·소설이 어른의 입장에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는 관점에서 창작되어 왔다면 대중물은 아예 입장을 바꾸어서, 어린이 편에서 대상을 바라보고 재미를 찾아나가는 방식으로 창작의 관점이 바뀌어진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의 전환은 작가가 작품을 형상화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온다.

독서욕구 유발의 4가지 요인

작가가 어린이의 관점에서 창작에 임하게 되면 우선 ‘재미성’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요소에 비중을 두지 않을 수가 없다.

첫째, 유머 감각이다.

유머는 인간 삶에 활력을 높여주는 중요한 심리 動因으로, 우리나라의 전래동화를 비롯하여 많은 명작들에 재미를 부여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차원높은 유머는 확실히 작품에 활기를 불어넣음으로써 독자에게 책을 읽는 즐거움과 쾌감을 제공해준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순수 동화·소설에서는 이것을 도외시하거나 의식적으로 기피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 까닭은 어린이에게 근엄한 도덕관이나 가치관을 심어주려고 하는 유교사회적 풍토에서 나온 것으로, 작품에 유머나 웃음이 들어가면 어쩐지 글이 가볍고 경박해진다는 뿌리깊은 인식 때문이었다. 그리고 아동문학 발아기인 方定換 시대의 못살고 천대받던 어린이들에게 유머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다. 이와 같은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져 우리나라의 동화·소설은 전체적으로 색조가 어둡고 궁상맞은 일면을 벗어나지 못해왔다.

그러나 시대는 많이 변했다. 이제는 문학작품이 어린이에게 딱딱한 교훈을 주기보다는 즐거움을 주고, 그 즐거움을 통해서 삶의 방법과 길을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경향으로 그 기능이 전이되어가고 있다. 이 시대의 어린이들이 교훈 일변도의 순수물을 외면하고 명랑소설에 탐닉하는 것은 바로 문학의 중요한 기능의 하나인 유머 감각을 개발견한 데 대한 만족감의 반응으로 보아 마땅할 것이다.

둘째, 개성있고 발랄한 인물상의 창조다.

어느 경우이나 인물의 성격은 작품의 성패를

지금까지 비난의 대상만 되어 왔던

대중적 아동문학에서도 배울 점은

얼마든지 많다. 아동문학이

아동문학가끼리만 돌려보는 수준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는, 이른바

‘명랑소설’ 류의 유머감각, 개성있고

발랄한 인물상, 소재와 줄거리의

신기성, 문장구사의 탄력성 등의

장점이 적극적으로 차용되어야 한다.

좌우하는 중요 요소로 작용하는 범이지만 특히 아동문학 작품에서의 인물상은 그것을 읽는 어린이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관심의 표적이 된다. 작품 속에 정의롭고 강한 주인공이 등장하여 불의를 물리칠 때 어린이는 그 주인공과 자신을 同一視함으로써 책을 읽는 쾌감과 즐거움을 맛보게 된다. 만약 작품 속에서 자신과 동일시되는 인물을 발견할 수 없을 때 어린이는 실망하고 재미없어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인물상이 시대에 따라 변하고, 또 변해야만 된다는 사실이다. 어린이가 천대받고 사회가 몽매하던 2,30년대에는 계모에게 박해받는 어린이가 동정의 대상이 되고, 그런 속에서도 어른에게 거역하지 않는 순종형의 어린이가 독자에게 위안을 주고 대리만족을 줄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인물상이 어린이에게 공감을 줄 수가 없다. 6·25와 같은 수난기에는 고난을 극복하고 자기를 희생함으로써 여러 사람을 살리는 용감하고 강인한 어린이상이 칭송의 대상이 될 수 있었지만, 자율과 협동이 중시되는 민주 시민사회에서는 오히려 평범 속에서 갈등을 조화롭게 해결해나가는 밝고 개성있는 인물이 어린이들의 동일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근래 비판의 대상이 되어온 명랑소설 등 대중물이 여러가지 문제를 안고 있지만 적어도 그들 작품 속에 이 시대에 걸맞지 않은 낡은 인물상이 그대로 답습 묘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유념해볼 만한 일이다. 많은 어린이들이 최근의 명랑물을 읽으면서 그 속에서 자기와 유사한 인물상을 발견하고 자기의 이웃과 친구를 만나서 즐거움을 느꼈다면, 순수라는 미명아래 언젠가 지나 말썽 안 부리고 착한 일만

하는 모범생상을 이 시대의 이상적인 아동상인 양 고집을 부릴 수는 없는 일 아닌가.

셋째, 소재와 줄거리 전개에 있어서의 신기성 창출이다.

어린이는 본능적으로 미지의 세계에 대하여 알고 싶어 하고, 그것을 찾아 모험을 즐기려는 호기심으로 가득차 있는 존재다. 이제까지의 순수물이 항상 되풀이되는 소재에, 결말이 뻔한 줄거리 전개로 어린이에게 식상감밖에 안겨주지 못하던 시기에 性이나 철학이나 하는 새로운 이름을 달고 나온 소재는 신기성을 찾는 어린이에게 독서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비록 황당무계하기는 하지만 일상의 예상을 뛰어넘는 귀신 이야기도 어린이의 상상력과 모험심리를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그렇다고 어린이의 말초신경이나 저급심리를 자극하여 호기심을 유발하는 대중물의 수법을 옹호하자는 것이 아니라 순수물에서도 항상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고, 상상의 한계를 뛰어넘는 줄거리 전개와 사건 설정으로 신기성을 갈구하는 어린이의 독서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소재와 줄거리 전개의 신기성은 독자에게 항상 신선한 자극을 주고, 책을 끝까지 읽지 않고는 못 견디는 긴장감을 유발시킨다. 최근의 대중물이 독자 개발에 성공한 것도 이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넷째, 문장 운행의 탄력성이다.

문장은 작가 개인에 따라 특성과 호흡을 달리하는 것이지만 서술 위주의 지루한 상황 설명이나, 몇 페이지를 넘기도록 독자의 관심을 끄는 사건이나 인물이 등장하지 않는 평면적인 문장 운행은 독서의 흥미를 반감시키는 원인이 된다. 특히 요즘처럼 생활 리듬의 템포가 빨라지고 어린이의 관심이 독서 이외의 각 분야로 분산되어 있는 시대에는 변화 없는 단조로운 문장은 독서 자체에 대해 염증을 일으키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된다.

그런 점에서 최근에 나오는 대중적 아동 독서물이 의식적으로 문장의 호흡을 짧게 하고, 대화체 기법을 응용하여 철저하게 묘사 위주의 문장운행을 해나가는 것은 독자를 책 속으로 끌어들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보인다. 그리고, 문장 서술 자체에 입체성과 감각성을 부여하여 글을 읽으면서 바로 어떤 상황과 인물의 像이 머리 속에 떠오르도록 하는 수법도 독자 유인의 유효한 방법이 되고 있다. 최근 젊은 작가들에게는 이런 탄력적인 문장 운행

원고만 주시고 책을 받아보세요!

입력 · 편집 · 제판 · 인쇄 등을 한 곳에서 처리 가능

SCALING

Traditionally, it is common to create an illustration larger than its final reproduction size and let the camera sharpen any imperfections when it reduces the illustration. This is not the c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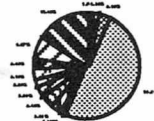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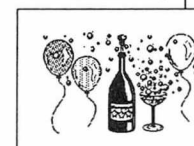


illustration is not recommended because whenever you reduce or enlarge screen ruling is also reduced or enlarged. For example, reducing ruling to 133 lpi. If you are parations controllin enlargement on illustration.



however, with Aldus FreeHand. Reducing your

“
매킨토시로
대지작업 없는
신속한
전자 출판
시스템을
활용하세요
”

◇시설내역◇

편집부

- 전자출판 시스템 '매킨토시' 전품목 설치
- 유능한 편집인

인쇄부

- Miller 2칼라 2대
- Rolend 4칼라 1대

윤전부

- 4×6 전지 8색기 2대

코팅부

- 전자동 라미네팅 (무광, 유광)
- 전자동 u, v 코팅



삼정프로세스
Sam Jung Process Co.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 1가 46-17
TEL : 704-8384~5 FAX : 717-7311

인쇄부 : (02) 718-4301~3
코팅부 : (02) 632-0914~5
윤전부 : (0344) 965-4301~2

*이 광고는 매킨토시로 편집하였습니다.

테크닉이 어느 정도 숙련되어 있지만 50대 이상 기성층과 문장수련이 덜 된 아동문학가들의 문장은 여전히 지루하고 관념적이며, 성인 취향의 고정된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내용의 순수성 여부를 떠나서 글이 아동에게 읽히고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우선 앞부분 몇 줄의 문장부터 독자의 흥미를 사로잡는 마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이 시대의 아동물 작가들은 터득해야 할 것이다.

재창조 작업 이루어져야

앞에서 열거한 4가지 요인, 즉 ① 유머 감각 ② 개성있고 발랄한 인물상 ③ 소재와 줄거리의 신기성 ④ 문장 유행의 탄력성은 최근 독자 확보에 성공하고 있는 대중적 아동문학(도서)에서 공통적으로 추출해낼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들이다. 다시 말하면 이 4가지 요인이 어린이로 하여금 대중적 아동문학에 흠뻑 빠져들게 하는 흡인력 구실을 한다는 말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법의 개발을 가능하게 한 것은 작자의 창작 관점의 전환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도 앞에서 지적한 바 있다.

필자가 주장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독자 유인의 핵심요소들을 순수문학에 접목시켜 보자는 것이다. 그리하여 기왕에 순수문학이 보유하고 있는 예술적 교육적 순기능을 보다 이 시대 아동의 구미에 맞게 재포장함으로써 창작동화·소설도 어린이에게 즐겁게 읽히는 문학으로 승화시켜 보자는 것이다.

세계의 아동문학을 돌아보면 각 민족이나 국가마다 각기 그들 고유의 특성과 색채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오랜 역사와 생활풍습, 그리고 지리적 풍토적 요인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생성된 것으로, 그 속에는 그 민족이나 국가가 지향하는 바 목표와 이상이 담겨 있게 마련이다. 어른들은 그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自國 어린이들에게 그들이 이룩해야 할 미래상과 삶의 방법에 대해서 여러가지를 생각하도록 도와주고 깨우쳐 준다. 이것이, 아동문학이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도 전래동화나 민화 속에 매우 바람직한 가치관이나 지향 의식을 가지고 있다. 뽕을 징치하는 방법으로 보복보다는 용서를 통해 풀을 지향하게 하는 군자적 가치관이라든지, 고난에 찬 현실을 투쟁적 방법이 아닌 웃음과 기지로 극복하게 함으로써 삶을 서로 화합하고 평화지향적으로 이끌어가게 가르치

는 것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도덕가치 지향 의식은 현대 민주시민 사회에 재현하더라도 조금도 하자가 없는 건강한 덕목들이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우리보다 앞서 아동교화에 눈을 뜬 선진 문화권에서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개작하고 재창작함으로써 그 당대에는 물론, 먼 미래에도 영원히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객관화하는 작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는 사실이다. 오늘날 세계 어린이들에게 읽히는 그림 동화나 안텔센 동화가 모두 그 나라 전래 동화나 민화를 채집·정리하는 과정에서 새로 만들어진 이야기라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근래에 만들어진 것으로는 라게를뢰프의 「닐스의 모험」(스웨덴, 1906)이 있다. 이 이야기는 작자가 고향에 전해져 내려오는 난장이 설화를 현대의 어린이 감각에 맞도록 상상력을 가미, 재창작함으로써 시공을 초월하여 세계성을 획득한 좋은 예이다.

이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순수 아동문학은 전통을 현대화·객관화시키는 데 너무 등한해 왔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아니, 등한한 정도가 아니라 무엇을 새롭게 시도하거나 전통에 도전하는 노력을 마치 아동문학의 이단인 양 백안시하는 경향마저 없지 않다. 그 결과 주제나 소재가 미래지향적으로 개방되어 나가기보다는 과거회귀적으로 움츠러드는 현상을 낳게 되었고, 그러한 보수 성향은 현대 어린이의 감각에 맞지 않아 독자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말하자면 아동문학가 자신이 스스로의 묘혈을 판 셈이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어린이들의 인기를 얻고 있는 대중적 아동문학은 독재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재평가해볼 필요가 있다. 상업적 의도에서 비롯된 내용상의 결함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독자를 유인하는 기법상의 개발 노력은 소중한 자산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독서욕구를 유발하는 유효한 수단이라면 순수문학에서도 이를 과감히 수용하여 기존의 전통을 현대의 어린이들에게 맞도록 재창조하고 객관화하는 노력을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그것이 전통을 올바르게 계승하는 길이며, 국적 있는 아동문학을 창출해내는 길이기도 하다. '아동문학은 동업자들끼리만 나뉘보는 문학'이라는 오명을 이제는 벗어나야 할 때가 아닌가.